

세종 회례연 공연을 위한 의례복식의 유형 고찰

백 영 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An Inquiry into the Types of Ceremonial Costume Worn for the Performance of Sejong Hoi-ryeyeon

Young-Ja Baik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투고일: 2009. 9. 29, 심사(수정)일: 2010. 1. 5, 게재확정일: 2010. 1. 5)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reproduction of King Sejong's costume presented in <tae pyonggiak - King Sejong, hearing the voice of the heaven> at the National Classical Music Institute in the late of 2008. The performance was presented focusing on the idea of ceremonial music of hoi-ryeyeon produced in the reign of king(1433). The reproduction of King Sejong's costume was undertaken to keep pace with the times and to pay due regard to the performance costum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King Sejong's Hoi-ryeyeon ceremonial costume is a royal robe(gonryongpo), the best one of king's clothing. The basic type of gonryongpo is that of fastening four yongbos to danryoung. The type of gonryongpo is, therefore, made with reference to unearthed articles and portrait of the first king of the Yi dynasty. The yongbo is larger one than the late period of the Yi dynasty in the light of portrait of the first king of the Yi dynasty. The supporting type of gonryongpo is that of gonryongpo, dapho, and chulrik, king's dress granted by Myeong dynasty. In the late period jikryeong was used as supporting dress and fixed to be lining and included jikryeong. Therefore the order of supporting dress was jikryeong, dapho and chulrik and was reproduced with reference to unearthed articles in the early Yi dynasty, as did the small piece of crown, belt and shoes.

Key words: Hoi-ryeyeon(회례연), King Sejong(세종 대왕), ceremonial costume(의례복),
Gonryongpo(곤룡포), Jikryeong(직령)

I. 서론

본 연구는 국립국악원의 2008년을 마감하는 송년 공연이었던 태평지악(太平之樂)-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가 공연되던 당시 제작했던 세종의 복식 일습(一襲)의 형태 및 유형파악에 관한 것이다.

이 공연은 세종 15년(1433) 정월에 근정전에서 베풀어진 회례연¹⁾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조선전기 예악(禮樂)사상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는 『樂學軌範』의 會禮宴儀²⁾와 『世宗實錄』의 會禮儀注³⁾가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공연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아악이 도입된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 궁중예술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예악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을 재연한 것으로 궁중복식, 정제, 음악 등 공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중 복식에 대한 고증복원 작업은 주요 등장인물인 세종대왕, 맹사성, 신상, 박연과 그 밖의 관원과 내관, 상궁, 악단과 무용단들의 역할에 알맞은 의상으로 제작되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등장인물 중에서 세종대왕의 회례연 의례복식이 어떤 것인지 그 일습(一襲)의 형태 및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은 고증을 위해서는 고문헌과 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고, 실증적 형태파악을 위해서는 출토유물을 활용하고 이들을 시각적 자료인 어진 등의 회화를 대조해 보면서 어떤 유형의 의복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고증 문제와 유형파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회례연의 의의와 절차

회례연은 조선시대에 매년 정초(正朝, 1월 1일)·정지(正至)·탄일(誕日)·동지(冬至, 12월 22일경) 또는 경사(慶事)가 있는 유명일(有名日)에 궁중에서 임금과 왕세자(王世子), 문무백관(文武百官) 등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 군신(羣臣)의 노고를 치하(致賀)하고, 서로의 정과 뜻을 교환하는 자리로 궁중에서 베풀던 대연회(大宴會)이다.⁴⁾

<표 1> 악학궤범에 기록된 회례연의 의례절차

절차	악대	악곡	무용
전하출궁	헌가	윤안지악	
배례	헌가	서안지곡	
제1작	헌가	휴안지악	
제2작	헌가	휴안지악	
진찬안	헌가	휴안지악	
진화	헌가	휴안지악	
진소선	헌가	수보록지악	
제3작	등가	문명지곡	문무
진탕	헌가	근천정지악	
제4작	등가	하황은지악	문무
진탕	헌가	수명명지악	
제5작	헌가	무열지곡	무무
진탕	전상악	서자고지악	
제6작	전상악		몽금척-무동
진탕	전상악	수룡음지악	
제7작	전상악		오양선-무동
진탕	전상악	황하청지악	
제8작	전상악		동동-무동
진탕	전상악	만년환지악	
제9작	전상악		무고
진대선	전상악	태평년지악 정동방곡 (향당합주)	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수많은 회례연에 관한 기록 중에서도 1433년 1월 1일의 회례연은 처음으로 아악(雅樂)을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세종7년(1425)에 설치한 관습도감(慣習都監)의 악학별좌(樂學別坐)에 임명된 박연(朴堧, 1378~1458)은 아악의 정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율관과 아악기의 제작, 아악보의 발간 등 정비작업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 세종 15년(1433)의 회례연이므로 예악제도를 표준으로 전통음악 문화를 재정립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회례연에 대한 중지여부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회례연의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조정의 예의는 공경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임금과 신하의 분수는 엄숙한 것을 으뜸으로 하지만, 군신이 함께 연회를 열어 위와 아랫사람의 사이에 정과 뜻을 교환하는 일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⁵⁾라고 하여 국가의 재정(財政)이나 사신의 방문을 이유로 폐지할 수 없었던 중요한 연회임을 알 수 있다.

세종조 회례연 절차는 『악학궤범』에 제9작까지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아악, 당악, 향악이 사용되었고, 무동이 정재를 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등장인물들의 복식구성과 착장모습<그림 1, 2, 3, 4>, 극중 역할에 관해서는 <표 2>⁶⁾로 정리하였다.

Ⅲ. 세종대왕의 회례연 의례 복식

1433년 회례연에 등장하는 주요한 역할에 따라 설정된 인물로는 세종대왕, 맹사성, 신상, 박연이 있는데, 세종대왕은 회례연 참관과 예악 논쟁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좌의정인 맹사성은 예악논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예조판서 신상은 회례연의 식순을 진행하는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악학별좌 박연은 아악에 관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과를 발표하며 예악논쟁에 참여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이들 중 세종대왕의 복식 일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다루겠지만, 주요

1. 세종대왕 회례연 의례복의 유형

여기에서는 조선초기 세종대왕이 회례연에 참석할 때 입을 의례복으로는 어떤 유형의 왕복을 입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왕복에는 의례(儀禮)의 종류에 따라 복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 종류로는 정조(正朝), 동지(冬至), 조회(朝會), 수책(受冊), 납비(納妃) 등에 착용하는 대례복(大禮服)과 종묘(宗廟) 사직(社稷) 등에 제사지낼 때의 제복(祭服)에 속하는 면류관(冕旒冠)·곤복(袞服)으로 구성된 면복(冕服)이 있다. 또한 삭망(朔望), 진표(進表), 조현(朝見) 등에 착용한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

<표 2> 세종조 회례연 주요 등장인물의 복식

등장인물 복식구성	세종 (왕)	맹사성(정1품 좌의정)	신상(정2품 예조판서)	박연(종3품 대호군/악학별좌)
관(冠)	익선관	烏紗帽	오사모	오사모
표의(表衣)	곤룡포	아청색 단령	아청색 단령	두록색 단령
보(甫)/흉배(胸背)	오조룡보	孔雀흉배(공연용)	雲雁흉배(공연용)	-
리의(裏衣)	아청색 직령, 황색 답호, 녹색 철릭, 옥색 저고리, 옥색 바지	자색 직령, 황색 답호, 홍색 철릭, 회색 저고리, 회색 바지	자색 직령, 녹색 답호, 황색 철릭, 회색 저고리, 회색 바지	홍색 직령, 아청색 답호, 황색 철릭, 분홍색 저고리, 분홍색 바지
리(履)	흑색 신	흑색 신	흑색 신	흑색 신
일습 착장모습				
	<그림 1> 세종 착용,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그림 2> 맹사성 착용,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그림 3> 신상 착용,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그림 4> 박연 착용,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극중역할	회례연참관 예악 논쟁주관	예악논쟁참여	회례연 식순진행	경과보고 예악논쟁참여

袍)로 구성된 조복(朝服), 왕의 시무복(視務服)이었던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로 구성된 상복(常服)이 있다.⁷⁾ 이들 의례복 중 회례연에 입는 왕의 복식에 관한 기록으로는 명종14년(1559)에 상복을 착용하였다는 기록⁸⁾이 있다. 그러므로 왕의 회례연 복식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은 상복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도 기록된 왕의 상복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 26년(1444)⁹⁾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명(明)으로부터 친왕례(親王禮)에 따라 향조추사로 만든 익선관과 대홍색 곤룡포를 사여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복식일습의 종류와 직물무늬, 색상을 알 수 있다.

즉, 명에서 받은 상복(常服)은 향조추사 익선관(香皂皺紗 翼善冠) 1정(頂), 옥대(玉帶) 1개, 조록피화(皂鹿皮靴) 한 쌍, 포복(袍服) 3습(襲)으로 각각 3건(件)인데 구체적인 포복 3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사 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청암화 담호(靑暗花搭襖)
 흑록암화 철릭(黑綠暗花貼裏)

사 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청암화 담호(靑暗花搭襖)

앵가록화 철릭(靑哥綠花貼裏),

라 대홍직금 곤룡포(羅大紅織金袞龍袍)

청소 담호(靑素搭襖)

유청소 철릭(柳靑素貼裏)

여기에서 곤룡포는 신하들이 입는 단령과 그 형태가 같고 다만 색상이 대홍색이며 가슴과 등 그리고 양쪽 어깨에 4개의 보를 부착한다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출토복식에 의한 임진왜란 이전 남성의 포(袍) 종류에는 단령(團領), 직령(直領), 담호(搭胡), 철릭[貼裏], 액주음(腋注音) 등이 있는데, 이들 조선전기 출토복식 중에서 한 묘(墓)에서 복식의 일습으로 보여지는 유물이 출토된 것은 변수(邊脩, 1447~1524)와 김홍조(金欽祖, 1461~1528)이므로 이들 출토유물의 복식 일습을 참고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들 출토유물의 선택은 세종조 회례연과 비슷한 시기인 조선전기의 유물이면서 단령 착용모습이 <그림 5>¹⁰⁾의 태조어진, <그림 6>¹¹⁾의 세종어진과 형태가 흡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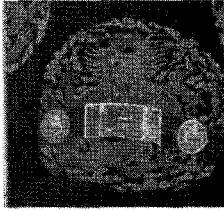
<그림 5> 태조어진, 역사인물초상화대전, 2003,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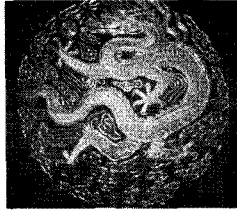
<그림 6> 세종어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09

2. 세종대왕 상복의 제작

1) 곤룡포



〈그림 7〉
영조대왕어진의
오조룡포,
역사인물초상화대전,
2003, p.17



〈그림 8〉 왕의 보,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곤룡포는 용포(龍袍) 또는 망포(蟒袍)라고도 하였는데, 포(袍)의 가슴과 등, 좌우 어깨에 금사로 자수된 오조원룡보(五爪圓龍補)를 첩부(貼付)하고, 대(帶)는 조옥대(雕玉帶)로 대홍색 단(緞)으로 싸고 금(金)으로 그렸다.¹²⁾

곤룡포에 관하여 『國朝喪禮補編』에는 습(襲) 기록에 평일에 착용하던 것을 쓰는데, “육운문홍단(六雲紋紅緞)을 써서 둥글게 마름질하여 본(本)을 만들고, 금선(金線)으로 오조룡(五爪龍)을 수놓아 포의 흉배(胸背) 및 좌우 어깨에 꿰맨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왕의 곤룡포에는 용보를 부착하는데, 조선전기 왕의 보는 지름의 크기가 38cm 정도로 후기의 곤룡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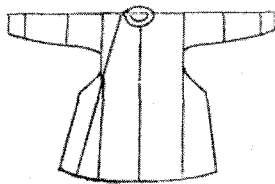
보다 컸으며, 용의 형태 또한 용두가 정면(그림 7)¹⁴⁾이 아닌 옆면이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연의상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지름이 크고 옆을 주시하는 형상의 용을 금사로 수놓아 보를 제작하였다(그림 8).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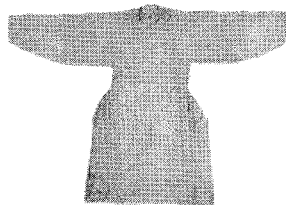
세종대왕의 곤룡포인 단령의 형태는 『악학궤범』의 단령도식화(그림 9)와 조선전기 출토복식인 변수 묘(그림 10)¹⁵⁾와 김홍조 묘(그림 11)에서 출토된 단령의 형태를 참고하였다.

조선 초 단령 유물의 특징은 모두 홀옷으로 깃의 형태는 후기의 단령 보다 깃의 목 둘레 파임이 적고 깃 너비가 좁다. 소매는 조선후기의 단령은 광수(廣袖)로 두리소매 형태이나 초기의 단령은 직배래 형태로 수구 쪽으로 갈수록 소매통이 좁아지며 소매길이 긴 특징이 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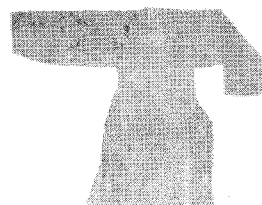
걸선은 넓어서 안섶을 거의 덮어 옆선에 깊이 여며졌고, 길 옆에 달린 사각형의 무는 접힘 방식에 따라 조선후기 단령과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조선전기 단령의 무 특징은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주름이 접혀진 상태의 대소안팎주름형 무로써 『악학궤범』과 변수, 그리고 김홍조의 단령의 도식화(그림 13)를 참고하여 제작방법을 파악하였다¹⁶⁾.



〈그림 9〉 15세기 단령형태
악학궤범, 권9, 1493,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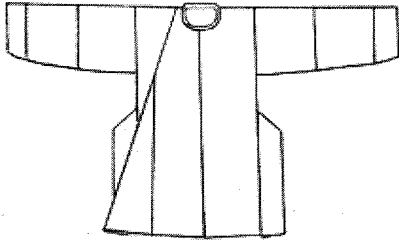
〈그림 10〉 변수 묘 단령
변수 묘 출토 유물 문화재지정
조사, 2009,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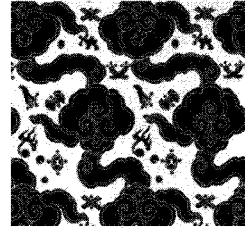
〈그림 11〉 김홍조 무명 홀단령
문화재대관, 2006, p. 363.



〈그림 12〉 곤룡포
착용모습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그림 13〉 김홍조 단령 도식화



〈그림 14〉 1500년대 추정 운보문
한국직물문양이천년,
2006, p. 336.

■ 바느질법

출토복식에 나타난 홀로 된 단령(團領)의 바느질법은 흠질, 반박음질, 온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싹술, 통술, 상침, 수직감침질 등¹⁷⁾이 있는데, 김홍조의 단령 바느질법은 등솔기와 걸썩 솔기, 소매의 배래솔기는 곱솔 방법으로 처리되고 그 외의 솔기나 진동, 안섷, 무 등은 옷감의 식서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박음질하였다.¹⁸⁾

실제 공연의상을 제작할 때에는 단령의 특징인 둥근 깃은 정바이어스로 재단하였으며, 목에 닿는 가장 자리를 줄이고, 길에 연결될 부분은 늘이는 방식으로 U자형이 되도록 하였으나 깃을 제외한 부분은 공연의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재봉틀로 바느질하였다.

■ 소재와 문양

곤룡포의 색상은 대홍색으로 소재는 단(緞)이나 여름철에는 사(紗)를 사용한다. 조선초기 형태의 운보문단(雲寶文緞)의 특징은 운두가 크고, 운두를 연결하는 구름의 간격이 후기에 비해 짧은 형태이며 운문 사이사이에 보문을 가하였다(그림 14)¹⁹⁾. 이를 참고하여 유사한 문양으로 직조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2) 받침옷

명에서 사여한 왕의 상복은 곤룡포, 답호, 철릭으로 직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전기 왕의 상복 일습은 곤룡포, 답호, 철릭만으로 주장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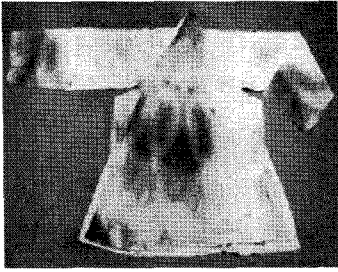
도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곤룡포나 단령의 제작방법을 보면 직령이 받침옷으로 입혀지다가 안감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조선전기에 과연 직령을 받침옷으로 착용하였는지 아니면 착용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송효상(15세기 후반 추정) 출토복식(그림 15)²⁰⁾과 김홍조 출토복식(그림 16)²¹⁾에 직령이 일습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곤룡포의 안감 개념의 받침옷으로 직령을 제작하였다. 그밖에도 우리나라 복식은 겹쳐 입는 포가 적을수록 일상적이며 하층민의 옷이고, 겹겹이 겹쳐 입을수록 의례복의 의미가 커짐과 동시에 상류계층의 옷을 의미하는 점을 감안하였다. 또한 공연 의상으로서도 많이 입을수록 볼륨의 미가 살아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직령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1) 직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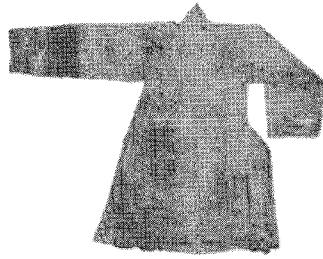
조선전기의 직령은 단령의 둥근 깃과 구분되는 곧은 깃으로 깃을 제외한 소매의 직배래와 무 형태는 단령과 동일하다. 송효상(그림 15)과 김홍조(그림 16)의 직령은 이중칼깃으로 되어 있고, 대소안뿔주름형의 무²²⁾가 달린 홀직령이다(그림 17). 제작된 직령의 소재는 아청색 운보문단을 사용하였고, 조선전기 직령 유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깃의 형태가 직령으로 하였다(그림 18).

(2) 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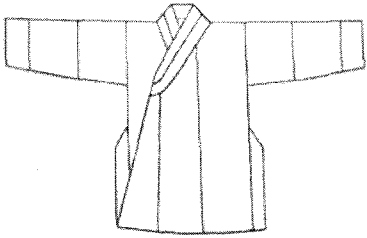
답호는 곤룡포 밑에 받쳐 입고 철릭위에 입는 안소매 옷으로 기본구조는 직령과 동일하고 소매만 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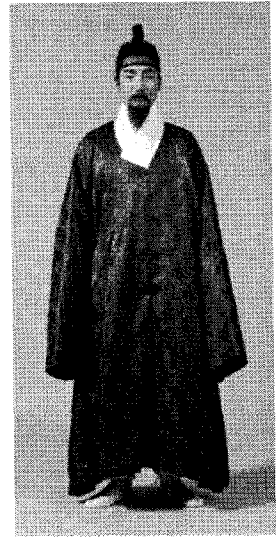
〈그림 15〉 송호상 직령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2007,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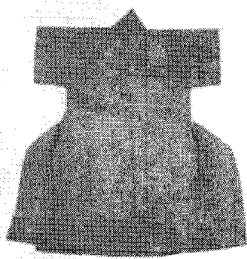
〈그림 16〉 김홍조 직령
문화재대관, 2006, p.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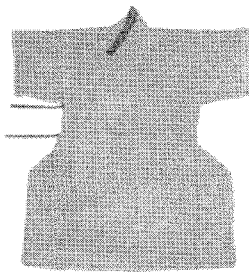
〈그림 17〉 김홍조 직령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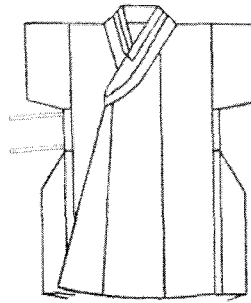
〈그림 18〉 직령 착용모습,
실경디자인연구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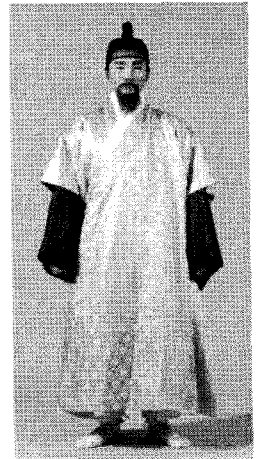
〈그림 19〉 변수 묘 답호
변수 묘 출토 유물
문화재지정 조사, 2009, p. 27.



〈그림 20〉 김홍조 답호
문화재대관, 2006, p.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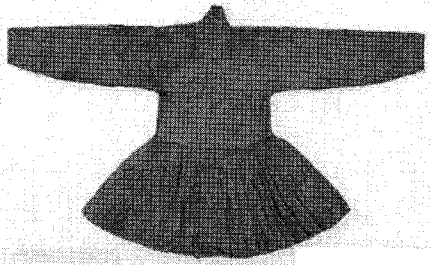
〈그림 21〉 김홍조
답호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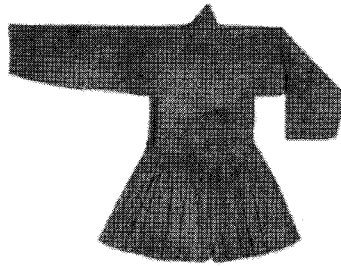
〈그림 22〉 답호 착용모습,
실경디자인연구소, 2008.

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19). 조선전기의 답호는 무의 형태가 단령과 직령의 무와 동일한 대소안뿔주름형이다. 여밈은 옆선까지 여미게 되어 있고, 두 개의 짧은 고리고름(그림 20, 21)이 달려있다. 답호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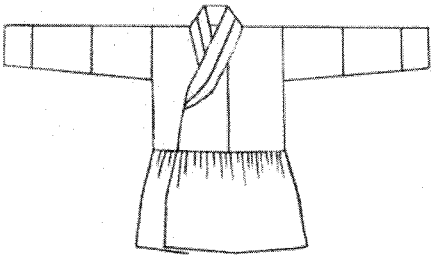
재는 문단(文緞)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조선전기 답호의 특징에 따라 직령과 같은 구조로 칼깃형태이지만 반소매인 것만 다르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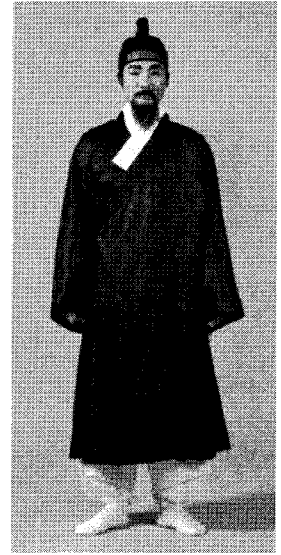
〈그림 23〉 변수 묘 철릭
변수 묘 출토 유물 문화재지정 조사,
2009, p. 20.



〈그림 24〉 김홍조 철릭
문화재대관, 2006, p. 366.



〈그림 26〉 김홍조 철릭 도식화



〈그림 25〉 철릭 착용모습,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3) 철릭

철릭은 상의와 하의를 따로 구성하여 허리에서 연결시킨 형태의 포로 끈은 것에 치마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3, 24). 조선전기의 철릭은 의(衣)보다 상(裳)이 짧은 비율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26). 답호를 입기 전에 받쳐 입는 것으로 사용되어 곤룡포의 풍성한 실루엣을 완성시키며 철릭의 소재는 문단을 사용하였다(그림 25).

(4) 저고리, 바지

조선 초기 바지의 형태는 개당고로 밑이 트여 있거나 폭이 넓은 바지로 공연시 입기에 불편하고 독립된 겹옷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본 제작에서는 조선후기의 바지 형태인 사복바지로 하였고, 저고리와 바지의 소재는 무늬가 없는 견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3) 복식 소품

(1) 익선관(翼善冠)

왕의 관모는 익선관으로 겹정본건에 높이는 조선초

기이므로 낮은 편이다. 익선관은 복두(幘頭)에서 나온 것으로 검은 모라(帽羅, 또는 오사[烏紗])로 짜고, 정(頂)이 앞은 낮고 뒤는 높으며, 양각(兩角)이 절상(折上)하여 약간 정(頂) 위로 나와 있는 모습이다.

참고로 『國朝喪禮補編』에는 익선관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관은 종이를 풀로 붙여서 틀을 만들고 조모라로 싼다. 속은 아청속초를 쓴다. 크고 작은 빨 각각 두 개씩을 뒤쪽에 붙이고 위로 향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²³⁾

제작 크기는 가로 19.5cm, 세로 19.5cm 높이 22cm 이고, 재료는 말총, 대나무, 본견원단, 옷칠이 사용된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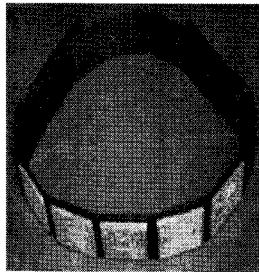
(2) 대(帶)

왕의 대는 옥대(玉帶)로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며, 재료는 용무늬 옥석을 대의 둘레에 10개를 장식하였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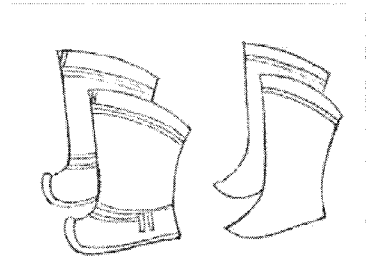
대의 제작방법은 “두터운 종이를 써서 가죽 띠를 만들고 홍광직(紅廣織)으로 싼다. 속에는 모단을 쓴다. 니은(泥銀)으로 과(鈔)를 그린다. 양쪽 끝에는



〈그림 27〉 익선관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그림 28〉 대
설경디자인연구소, 2008.



〈그림 29〉 화(左)와 갑정(右)
국역 國朝喪禮補編, 2008, p. 39.

모단으로 된 끈을 단다”는 기록이 있다.²⁴⁾

(3) 신

왕 상복의 신은 검정색으로 만든 화(靴)로 높이가 발목위로 올라오는 형태이다. 화 안에는 백말(白襪)을 신었고, 제작의 소재는 겨울에는 흑계자피(黑麂子皮), 여름에는 흑칠피(黑漆皮)로 만들었다.²⁵⁾ 『국조상례보편』의 곤룡포와 함께 있는 화는 비록 습(襲)의 경우이지만 갑정(甲精)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 29〉, “화의 겹은 모단을 쓰고, 속은 백방주(白紡紬)를 쓴다. 중이를 풀로 붙여서 만든다. 위쪽 단[緣]에는 녹색직(綠廣織)을 쓴다. 갑정은 백방주를 가지고 겹과 속을 만든다. 단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어 이를 볼 때 화를 받치는 것으로 속에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국립국악원에서 2008년 공연된 태평지악-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가 공연 되던 당시 세종대왕의 복식 일습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례연은 1433년 조선시대 세종조에서 거행되었던 회례연을 예약사상에 초점을 두고 무대에 올린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이 입을 복식이 어떤 것인지를 시대에 맞게 고증하면서도 공연의상임을 감안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종대왕의 회례연 의례복의 유형은 제복, 조복, 상복 등의 왕복 종류 중에서 상복인 곤룡포이

다. 또한 곤룡포의 기본형은 대홍색의 단령에 용보를 가슴과 등 그리고 양 어깨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곤룡포 형태는 조선시대 초기의 출토유물과 태조어진, 세종어진을 참고하였고, 용보는 태조어진과 영조어진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후기보다 크게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곤룡포 받침옷의 경우인데, 명에서 사여한 왕의 상복 일습은 곤룡포, 답호, 철릭이나 후기 단령은 직령이 받침옷으로 쓰이다가 안갑형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직령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곤룡포 안에 입는 받침옷은 직령, 답호, 철릭의 순으로 속으로 입혔으며 조선시대 초기 출토유물 형태를 취하여 제작하였다. 복식소품인 익선관, 대, 화 역시 조선시대 초기의 형태를 취하여 제작하였다.

세종조의 회례연 당시 복식을 제작함에 있어서 문헌과 유물을 바탕으로 재현하였지만, 공연을 위한 의상이라는 점에서 복식의 형태와 직물의 종류, 모델의 치수에 따라 고증된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한계점이 되었다. 실제 제작시에는 현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을 밝혀둔다.

이상의 연구 내용은 유형 및 형태파악을 위주로 전개되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구성 및 제작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참고문헌

- 1) 조선왕조실록. 世宗 15년(1433) 1월 1일 “上御勤政殿設會禮宴如儀 始用雅樂”

- 2) 樂學軌範, v.1 60b~61b. 卷之二 世宗朝會禮宴儀.
(재)민족문화추진회 (1979). *국역 약학궐범 I*. 서울: 신홍인쇄주식회사, pp. 144-146.
- 3) 조선왕조실록, 世宗 13년(1431) 10월 3일 “禮曹啓會禮儀注 ... 從之”
- 4) 조선왕조실록, 世宗 13년(1431) 9월 24일 “命詳定所議王世子參會禮宴儀 黃喜 孟思誠 許稠申商等以爲 謹按唐朝儀 皇太子先行禮 上公率群官行禮 奏禮物”
- 5) 조선왕조실록, 世宗 14년(1432) 5월 3일 “上曰 近因支待使臣 不行會禮宴 今年使臣亦來 供費彌煩 必不得爲也 崇善曰 使臣之來 無歲無之 若待無使臣之時 安有可行之日 朝廷之禮 以敬爲主 君臣之分 以嚴爲主 君臣同宴 上下之間 情志交孚 不可廢也 今國家財用充足 何可以使臣之故 遽廢盛禮乎 上曰 當更議行之”
- 6) <표 2>에서 보(甫)/흉배(胸背)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 世宗 8年(1426) 2월 20일 “傳旨禮曹 內出各色胸背紗羅四段并十一匹, 使臣迎接時, 雜伎人所着衣服造給”, 흉배제도는 成宗代에 도입되어 단종2년(1454) 제정되었다. 經國大典(성종16년, 1485) 참고.
원래 흉배제도는 단종(端宗) 2년(1454)에 제도화되어 조선전기기의 문무관의 단령에는 흉배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연의상임을 감안하여 문관 1품인 맹사성은 공작흉배(정응두: 1508-1572 출토유물 참조)를 달아 하급관리인 박연과 구별되도록 하였다.
맹사성과 같이 세종조에는 문무백관의 흉배제도가 없지만 역시 공연의상임을 감안하여 단종(端宗) 2년에 제도화된 것을 참고하여 문관 2품인 신상은 운안흉배(손소: 1433-1484와 이우: 1469-1517의 조상화 참조)를 부착하였다.
- 7)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188-205.
백영자, 최해울 (2004).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p. 183-188.
- 8) 조선왕조실록, 明宗 14년(1559) 1월 1일 “具翼善冠 袞龍袍 御勤政殿 行會禮宴”
- 9) 조선왕조실록, 世宗 26년(1444) 3월 26일 “謝恩使柳守剛齋勅書及冠服 (중략) 常服香皂皴紗 翼善冠一頂、玉帶一、袍服三襲各三件、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朵雲袍青暗花褶襖 黑線暗花貼裏 紗大紅織金袞龍暗骨朵雲袍青暗花褶襖 鸚哥綠花貼裏羅大紅織金袞龍袍青素褶襖 柳青素貼裏皂鹿 皮靴一雙”
- 10) 이강칠, 유희경 외 (2003).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서울: (주)현암사, p. 15
태조어진은 경기전 것으로 1872년 조중묵, 박기준, 백은배, 유숙 등에 의해 이모되었다. 붉은 어탁에 앉아 익선관에 청색 곤룡포를 착용한 모습이다.
- 11) 자료검색일 2009. 12. 1. 사진출처 http://www.sejongkorea.org/sub/sub02_01.php
세종어진은 운보 김기창(1914~2001) 화백의 작품으로 (재)운보문화재단에 저작권이 있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 12) 백영자, 최해울. *앞의 책*, 서울: 경춘사, p. 187.
-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국역 국조상례보편*. 서울: 민속원, pp. 38-39.
- 14) 이강칠, 유희경 외. *앞의 책*, pp. 16-17.
조석진·채용신 필, 영조대왕어진(英祖大王御眞) 광무사년(光武四年, 1900년) 경자(庚子) 이모(移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보물 제932호.
- 15) 국립민속박물관 (2009). *번수 묘 출토 유물 문화재지정 조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34
- 16) 이은주 (1998).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단령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p. 133.
- 17) 진현자 (2006). *조선 초기 단령의 모양 및 바느질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2-66.
- 18) 이은주 (1998). 김홍조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판결사 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경북: 영주시, p. 230.
- 19) 1500년대 추정 청주한씨 묘 출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출처는 심연옥 (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서울: (주)삼화인쇄 출판사/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p. 336.
- 20)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p. 11.
- 2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6). *문화재대관 : 중요민속자료 2 :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p. 364.
- 22) 이은주 (1998). 김홍조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판결사 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경북: 영주시, p. 232의 무분류를 참고하였다.
-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국역 국조상례보편*. 대전: 민속원, pp. 38-39.
- 24) *위의 책*, pp. 38-39.
- 25) 유희경 (1982). *조선조 초기의 복식,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 126.